

## 토탈 패션 Styling을 위한 헤어 행동 연구

정진태\* · 김철순<sup>†</sup>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 박지영헤어보그\*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 전공

### A Study on Hair Behavior for Total Fashion Styling

Jin-Tae Chung\* and Chil-Soon Kim<sup>†</sup>

Graduate School of Art Fusion Design, Kyung Hee University · Park Ji Young Hair Vogue\*  
Dept. of Textile and Clothing Design, Kyung Hee University  
(2008. 9. 23. 접수일 : 2008. 12. 16. 수정완료일 : 2009. 2. 26. 게재확정일)

#### Abstract

If people want to project a successful personal style, hair style might play a big role as well as cloth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hair behavior according to demographic variables, and to analyze correlation between desired hair image and clothing image sought.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600 females aged 20s ~ 40s, using a convenient sampling method. Only 556 reliable questionnaires were sele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r$ , ANOVA and Chi-square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the SPSS program. There was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hair style and occupation. Career woman preferred roll straight perm treated hair, students preferred general perm treated hair and full time house wives preferred general wave perm treated. The medium layer cut was the most preferred cut style. People want to give different accents in hair styling with occupation and age variable. Certain desired clothing image had a high correlation with desired hair style image. Those who people want to express sexy, and bohemian image through clothing, they also want to create those image in hair styling with a high correlation( $r=0.683$ ,  $r=0.704$ ).

*Key words:* hair behavior(헤어 행동), styling(스타일링), desired clothing image(의복 추구 이미지), desired hair style image(헤어 스타일 추구 이미지).

#### I. 서론

현대의 과거사를 통틀어 인간이면 누구나 외모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현대 사회생활에서 외모는 단순한 관심 이상으로 그 사대의 가치와 사고의 시각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외모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의상, 헤어, 메이크업, 액세서리, 소품

그리고 얼굴 표정 등의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하며 이러한 요소 중에서 의상과 메이크업은 본인이 원하는 컨셉을 연출해 가는 동안 수정,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다. 그러나 헤어의 경우 커트나 뽀 이 전에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얼굴, 의상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헤어 스타일을 확인해 본다 고 하더라도 일단 커트 후 소비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많은 변화를

<sup>†</sup> 교신저자 E-mail : cskim@khu.ac.kr

시도해 보기에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험 부담이 커져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헤어 스타일을 연출하는 스타일리스트의 판단과 스타일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이미지와 인상에서 헤어 스타일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서 헤어 스타일을 연출하는 스타일리스트는 얼굴형, 피부 톤, 체형 등의 신체적인 자산 이외에도 고객이 원하는 자기이미지와 스타일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개성이 있는 외모를 연출해야 한다. 물론 외모 이외에도 이미지 연출에서는 내면적 특성이 잘 나타난다면 더욱 매력을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헤어 스타일리스트나 디자이너의 경우 고객의 의도와 요구를 잘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헤어샵에 방문하는 고객들의 취향과 헤어 행동에 관한 이해와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그들이 착상하고 있는 의복의 이미지와 통하여 전체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링한 헤어 스타일을 제안하고 적용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발전하는 패션과 문화의 시대에서 미용실 고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40대의 여성을 중심으로 헤어, 의상에 대한 전반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또 현장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헤어 스타일리스트에게 헤어 스타일 연출시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며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두었다.

첫째, 직업, 연령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서 자주하거나 선호하는 펌 스타일, 커트 스타일, 헤어 컬러, 헤어 액세서리 컬러 및 헤어 스타일링 시 고려사항을 포함하는 헤어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본다.

둘째, 토탈 컨디셔닝을 위하여 추구하는 의복 이미지와 헤어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선행 연구 고찰

헤어 행동이란 일반적인 헤어에 대한 태도와 연출 행동, 헤어 스타일 선호도, 헤어 스타일 변화 요인, 헤어 지출 비용에 관련한 변인이며, 헤어 스타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행동을 다루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헤어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 논문을 고찰해 보면, 심리적 측면에서 헤어 스타일과 의식 형태와의 관련 요인을 분석한 양숙희<sup>1)</sup>의 연구에선 헤어 스타일의 만족 수준은 경제 상태와 학력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헤어 스타일을 바꾸는 이유는 기분 전환일 때가 가장 높은 응답이 나왔으며 헤어 스타일이 의상 스타일에 따라 헤어 스타일에도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진숙<sup>2)</sup>의 연구에는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아쉽다워 보이기 위한 것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미혼자는 우울 정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기혼은 우울 정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여성의 심리적 특성이 헤어 스타일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

헤어 스타일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박진숙<sup>3)</sup>의 연구로서 헤어 스타일을 이마의 구성 시스템에 따라 4가지 스타일별로 나눈 뒤 가발에 제작하여 가발을 정하고 검증하였으며 다양해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객관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헤어 스타일 전개방향을 제시하였다.

Choi, Na Young<sup>4)</sup>은 고대와 근대 사이의 한국과 일본의 헤어 스타일 변화와 기원에 관하여 고찰하면서 헤어 스타일은 불길한 징조를 피하고 여성의 미를 표현하며 결혼 상태, 사회적 지위와 부의 표현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II. L. Yu et. al.<sup>5)</sup>은 아시아 민속드레스에 영향을 받는 것로서의 현대패션디자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베트남에서의 11개의 요소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요소 중에 헤어 스타일과 메이크업 등을 포함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김희숙<sup>6)</sup>의 연구에서도 헤어 스타일과 메이크업이 서

- 1) 양숙희, "헤어 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 형태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2) 김진숙, "여성들의 헤어 스타일의 변화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3) 박진숙, "헤어 스타일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 N. Y. Choi, "Symbolism of Hair Styles in Korea and Japan," *Asian Folklore Studies* Vol. 65 (2006), pp. 69-86.
- 5) H. L. Yu et al., "An Analysis of Modern Fashion Design as Influenced by Asian Ethnic D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5 No. 1 (Dec. 2001), pp. 309-321.
- 6) 김희숙, "20세기 서구여성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대적 변천을 고찰하였고, 이것은 복식의 한 분야로서 서로 연관되어 사회문화적 배경과 예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토틸 패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Kéïta et. al.<sup>7)</sup>은 아프리카인의 헤어가 건조하고 곱슬곱슬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Bamako에 있는 여성들의 헤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살롱이나 헤어드레싱 센터에서 수행되고 있는 헤어 케어나 헤어 스타일링을 이해하고자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가장 이러한 장소를 찾는 이유는 건조한 헤어, 부서지기 쉬운 헤어, 앞머리의 탈모증, 예뻐 보이고 싶은 육구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며, 헤어 케어도 사롱에서 빈번히 이루어졌으나 몇 가지 메스꺼움, 탈모, 두피의 가려움증, 청력에 관한 문제점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었으므로 헤어드레스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등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일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명희<sup>8)</sup>의 연구에서는 헤어 스타일의 모방 의도는 성별에 따른 유형성, 텔런트 관심도, TV 시청 량에 차이가 있고 여성이 남성보다 영향력이 컸으며 유행에 민감할수록 텔런트에 관심이 많을수록 텔런트의 헤어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많았으며 추후 헤어 스타일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주위 사람들이 모방한 헤어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는 오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숙<sup>9)</sup>의 연구에서는 현대 여성의 다양한 얼굴형에 따른 효과적인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각 얼굴 유형별로 모델을 사용하여 가장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을 연출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뷰티와 관련하여 헤어를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이해정<sup>10)</sup>은 현대 트렌드에 따른 헤어 메이크업에 나타난 이미지를 자연주의, 초현실주의, 미니멀리즘, 오리엔탈리즘, 미래주의 팝아트 이미지로 분석하였고,

작품 제작을 하였는데 현대인의 피부색을 4단계로 분류하였고 각 피부색에 어울리는 헤어 컬러를 연구 대상자에게 직접 시술하여서 그에 따른 결과는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피부색과 헤어 컬러 그리고 예술 사조를 연결하여서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부의 색을 측정할 수 있는 측색기를 사용하지 않고 육안으로 측정하여서 객관성이 결여되고 헤어 컬러와 피부색의 조화 또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흡함을 남겼다.

하경연<sup>11)</sup>의 “헤어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헤어 디자인에 있어서 디자이너가 단순히 커트의 기술 이외에 토틸적인 조형미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조형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얼굴의 형태, 두상의 골격구조, 모질, 전체적인 이미지의 조화가 전체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헤어 스타일 선호도를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된 것도 있었는데 이정희<sup>12)</sup>는 여대생들의 헤어 라이프스타일의 행동양식에 따라 어떠한 헤어 디자인을 선호하는지와 헤어 스타일 선택 요인, 그리고 헤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한 바 있는데 조사 대상이 대구와 경북의 젊은 여대생들만으로 구성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헤어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류가 좀 더 다양하지 못하여 설문 문항 개발이 더 필요했음을 지적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 연구는 헤어 스타일의 선호도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의 관계, 헤어 스타일과 의식 형태, 심리적 특성과 헤어 스타일, 얼굴형과 체형에 따른 헤어 스타일 연구, 모방 패션에 대한 헤어 스타일 분석 등과 같은 연구들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경제가 발달하고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직업별 헤어 행동과 의복 행동에 대하여

7) S. Kéïta, O. Faye, B. D. M. Kane, H. Y. Th, N Daiye, P. Traore and K. Coulibaly, “Hair Care and Hair Style in Women in Bamako, Mali,”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Vol. 44 No. Suppl. 1 (2005), pp. 26-29.

8) 김명희, “헤어 스타일 모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9) 유현숙, “현대 여성의 토틸 코디네이션 연구: 얼굴형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 이해정, “현대 트렌드 분석에 따른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하경연, “헤어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헤어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2) 이정희, “여대생의 헤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 디자인 선호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고찰한 선행 연구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토털 패션에 대한 20~40대 여성들의 성향 분석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다.

## 2. 헤어 스타일

### 1) 커트(Cut)

커트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상하 계층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이 군수품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여성의 긴 머리가 거주상스러워 단순하고 관리가 쉬운 숏 커트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sup>13)</sup>. 커트의 종류는 모든 모발의 끝점이 한 평면에 일직선으로 놓이는 원 령스 커트(one length cut), 커트의 스타일에 일정한 무게 중심이 이루어지는 그라듀에이션 커트(graduation cut), 그리고 커트의 스타일에 일정한 무게중심 축이 모두 제거된 레이어 커트(layer cut)로 분류된다.

### 2)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일반적으로 일컫는 파마의 영문적 표기는 “permanent wave”라 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영구적인 머리의 흐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마를 “펌”이라고 부르기 위하여 그 종류에는 핫 웨이브 펌(hot wave perm)과 콜드 웨이브 펌(cold wave perm)으로 나뉜다. 핫 웨이브 펌(hot wave perm)은 1906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독일 헤어디자이너 카를 내슬러가 고안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수산화나트륨에 적신 머리 카락을 섭씨 100도로 달군 늦쇠 롤러로 단단히 말고 5시간을 견디어서 완성했다고 한다<sup>14)</sup>. 핫 웨이브 펌은 주로 테크닉과 도구에 따라 디지털 펌, 매직 스트레이트 펌, 세팅 펌 등으로 구분된다. 디지털 펌(digital perm)으로 저온에서 시술되는 펌으로써 저온에서 컬을 만들어야 하므로 약액의 모발 침투가 세팅 펌보다 많이 되므로 손상이 쉬게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모발 뿌리까지 웨이브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직 스트레이트 펌(magic straight perm)은

약액 처리 후 모발 탄성이 2~3배가 되면 세척 후 완전 건조 후에 플랫 아이론(flat iron)으로 스트레이트로 만든다. 세팅 펌(setting perm)은 대부분 모발에 약액을 도포 한 후 모발 탄성이 1~2배가 되면 세척 후 열이 가해지는 롤링(rolling) 후 중화를 하고 스타일링을 한다. 이때 롤링 시 한 번에 열을 가하지 않고 2번에 나누어서 열을 가하면 모발의 손상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 세팅 펌의 경우는 물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 컬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

콜드 웨이브 펌(cold wave perm)은 열작용 없이 산화·환원 작용만을 가지고 머리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펌 방법으로, 약액에 따른 일반 웨이브, 텍스처 펌 등이 있고 시술 도구에 따라 호일 펌, 베이비 펌, 레계 펌, 드레드, 아프로 펌 등이 있다.

### 3) 헤어 염색(Hair dyeing)

헤어 염색의 영문 표기는 “hair dyeing”이다. 헤어 염색의 역사는 이원영<sup>15)</sup>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 왕들의 부둣에서부터 발견되고 있다. B.C 2000년 전 이집트인들은 헤나 잎을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과 향신료, 오일을 한곳에 믹스한 것을 머리에 바른 후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음으로써 모발에 색을 입혔다. 이처럼 과거에는 식물의 뿌리나 꽃, 열매, 잎, 나무껍질 등의 자연재료를 이용하였고, 현재에는 다양한 합성 염모제를 이용한 염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헤어 컬러의 형성은 색상 견뢰도(color fastness)에 따라서는 일시적 염모제, 반영구적 염모제, 영구적 염모제로 구분된다<sup>16)</sup>. 일시적 염모제는 일시적인 염색 효과를 가지고 있는 pH가 중성에 가까우며, 반영구적 염모제는 2~3주간 색상을 지속할 수 있는 약체로써 약산성 상태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코팅(coating)이나 강산성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매니큐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구적 염모제의 경우는 색상이 오랜 기간 동안 색상이 유지되는데 알칼리 용액 상태에서 산화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한다<sup>17)</sup>. 또한, 헤어 염색 연출 방법에 따라서는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취

13) 고성형, 김세욱, 김희숙, 유유정, 이진아, 원선희, 정미희, 정시영, *커트 디자인*, (서울: 수문사, 2002), p. 25.

14) 박형심, *모발 미용학*, (서울: 정문각, 1997), p. 140.

15) 이원영, *Hair Concepts & Application*, (청구문화사, 2001), p. 206.

16) 고경숙, 윤복연, 박용, *헤어 컬러디자인*, (훈민사, 2005), pp. 84-87.

17) 이미선, *Hair Color Art*, (현문사, 2001), pp. 55-85.

향, 각각,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틴트(tint), 하이 라이트(high light), 로우 라이트(low light), 컬러 멜트(color melt)가 있다. 틴트(tint)는 한 가지 색으로 머리의 전체를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 하이라이트(highlight)는 주변의 머리색보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을 포인트 색으로 위빙을 하듯이 이용하여 연출하는 기법이며<sup>18)</sup>, 로우 라이트(low light)는 낮은 명도와 낮은 채도의 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연출하는 기법이다. 컬러 멜트(color melt)는 염색이 이루어지는 모발의 한 판넬(panel)에 2가지 색을 동시에 나누어서 바르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머리 판넬(panel)은 뿌리부터 2cm 정도는 어두운 색을 바르고 나머지 부분은 밝은 색을 바른다. 두 번째 판넬(panel)은 뿌리 부분부터 4cm 정도는 어두운 색을 바르고 나머지 부분은 밝은 색을 바른다. 이 두 가지 판넬을 교차하면서 염색하는 것을 일컫는데 즉, 하이라이트와 로우 라이트가 함께 이루어지는 염색 기법으로써 신생모가 나올 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정형화 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컬러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9)</sup>.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는데 설문조사는 2006년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강남역, 압구정역, 홍대와 대학로, 수원 및 분당 지역의 미용실 고객, 거주자 및 행인 포함)에서 20~49세까지의 여성을 편의 표집하여 600부를 일대일 설문지법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헤어 스타일에 관심이 없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556명의 설문지만 본 논문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유응답식 문항과 Likert 5점 척도법 등을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 성격 8항목, 헤어 행동에 관한 11개 항목, 의복

행동에 관한 8개 항목, 헤어 스타일 이미지 선호도, 의복 스타일 이미지 선호도, 헤어 컬러 선호도, 의복 컬러 선호도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 12.0)을 이용하여 빈도, Pearson 상관관계 분석, ANOVA 분석, Duncan 평균 비교분석, Chi-square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연령 변인의 경우 20~29세를 집단 1로 묶고 30~49세를 집단 2로 묶어서 2집단으로 세분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최근 40대 여성들이 좀 더 젊어 보이고 싶은 경향을 반영하여 연령 폭이 넓지만 30~49세를 같은 연령집단으로 설정하였다.

### Ⅳ. 결과 및 논의

####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연령은 20~29세가 59.7%, 30~49세가 40.3%로 분포되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59%, 경기도가 41%로 분포되었다. 직업은 사무직, 공무원, 교직, 의사, 연구원, 서비스업, 예술가, 디자이너가 47.6%를 차지하였고, 학생(대학생, 대학원생)은 37.6%를 차지하였고 주부가 14.8%를 차지하였다.

전체 가족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2.9%, 100~200만원 미만인 9.4%, 200~300만원 미만인 16.0%, 300~500만원 미만인 36.3%, 500만원 이상은 35.4%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19.3%, 전문대 졸업이 14.1%, 대학교 졸업이 27.7%, 대학교 재학이 31.8%, 대학원 졸업이 7.1%로 분포되었다.

#### 2. 헤어 행동 연구

##### 1) 현재 자주 하는 펌 스타일

###### (1) 직업별

현재 자주 하는 펌 스타일과 직업과의 연관성을

18) 김명주, 오현주, 이숙자, 『모발 미용학』 (유민사, 2006), pp. 308-311.

19) 정진태, "토틸 패션 Styling을 위한 헤어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분석하기 위하여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의 유형과 직업별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 ).

직장 여성의 경우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가장 높은 경우는 볼 스트레이트를 나타냈으므로 직장 여성은 볼 스트레이트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학생의 경우는 매직 스트레이트 편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제일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생의 경우는 매직 스트레이트 스타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부의 경우는 일반 웨이브 편에서 실측빈도가 기대 빈도보다 가장 높게 나왔으므로 주부는 일반 웨이브 편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빈도로는 펌 스타일 항목에서 직장 여성이 가장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

은 253명 중 24.9%에 해당하는 63명, 학생의 경우는 200명 중 30.0%에 해당하는 60명, 주부의 경우는 79명 중 29.1%에 해당하는 23명이 모두 머리 손질과 관리가 편하고 자연스러운 세팅 펌의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 (2) 연령별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의 유형과 연령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5$ ). 30~49세의 여성들은 일반 웨이브 편 스타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로는 20~29세에서 가장 자주 하는 펌 스타일은 세팅 펌 스타일을 가장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로 나타났다.

<표 1> 현재 자주 하는 펌 스타일과 직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펌 스타일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Chi 검정: <i>p</i> value
	직장 여성	학생	주부	합계	
권하는 펌	30( 26.2) ( 11.9)	14( 20.7) ( 7.0)	11( 8.2) ( 13.9)	55( 55.0) ( 10.3)	0.007**
세팅 펌	63( 69.4) ( 24.9)	60( 54.9) ( 30.0)	23(21.7) ( 29.1)	146(146.0) (27.4)	
디지털 펌	30( 30.0) ( 11.9)	24( 23.7) ( 12.0)	9( 9.4) ( 11.4)	63( 63.0) ( 11.8)	
일반 웨이브 펌	27( 28.5) ( 10.7)	16( 22.6) ( 8.0)	17( 8.9) ( 21.5)	60( 60.0) ( 11.3)	
매직 펌	28( 33.3) ( 11.1)	33( 26.3) ( 16.5)	9(10.4) ( 11.4)	70( 70.0) ( 13.2)	
볼 스트레이트 펌	37( 27.1) ( 14.6)	16( 21.4) ( 8.0)	4( 8.5) ( 5.1)	57( 57.0) ( 10.7)	
스트레이트 펌	11( 15.2) ( 4.3)	16( 12.0) ( 8.0)	5( 4.8) ( 6.3)	32( 32.0) ( 6.0)	
하지 얇음	19( 16.6) ( 7.5)	15( 13.2) ( 7.5)	1( 5.2) ( 1.3)	35( 35.0) ( 6.6)	
기타	8( 6.7) ( 3.2)	6( 5.3) ( 3.0)	0( 2.1) ( 0.0)	14( 14.0) ( 2.6)	
합계	253(253.0) (100.0)	200(200.0) (100.0)	79(79.0) (100.0)	532(532.0) (100.0)	

\*\*  $p < .01$ .

〈표 2〉 현재 자주 하는 펌 스타일과 연령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펌 스타일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Chi 검정: p value
	20~29세	30~49세	합계	
권하는 펌	26( 35.2) ( 7.8)	33( 23.8) ( 14.7)	59( 59.0) ( 10.6)	0.012*
세팅 펌	98( 92.0) ( 29.5)	56( 62.0) ( 25.0)	154(154.0) ( 27.7)	
디지털 펌	43( 38.8) ( 13.0)	22( 26.2) ( 9.8)	65( 65.0) ( 11.7)	
일반 웨이브 펌	26( 37.6) ( 7.8)	37( 25.4) ( 16.5)	63( 63.0) ( 11.3)	
매직 펌	48( 43.0) ( 14.5)	24( 29.0) ( 10.7)	72( 72.0) ( 12.9)	
롤 스트레이트 펌	39( 35.2) ( 11.7)	20( 23.8) ( 8.9)	59( 59.0) ( 10.6)	
스트레이트 펌	20( 19.7) ( 6.0)	13( 13.3) ( 5.8)	33( 33.0) ( 5.9)	
하지 않음	23( 22.1) ( 6.9)	14( 14.9) ( 6.3)	37( 37.0) ( 6.7)	
기다	9( 8.4) ( 2.7)	5( 5.6) ( 2.2)	14( 14.0) ( 2.5)	
합계	332(332.0) (100.0)	224(224.0) (100.0)	556(556.0) (100.0)	

\*  $p < .05$ .

2) 커트 스타일

(1) 직업별

현재 자주 하는 커트의 종류는 길이와 층이 난 정도에 따라서 6가지 항목으로 나뉘었으며, 자주 하는 커트 스타일과 직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짧은 커트, 어깨길이 층, 긴 생머리, 샐기 커트, 긴 층진 머리, 턱선 단발과 모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 ).

직장 여성의 경우 짧은 커트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직장 여성은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짧은 커트 스타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학생의 경우도 긴 생머리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생은 청순한 이미지의 긴 생머리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로는 직장 여성 커트 스타일에서는 어깨 길이 층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어깨 길이 층 스타일은 세미 레이어 커트(semi layer cut)라고 명명하며 무거운 층에서 벗어나 머리에 질감을 주어서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스타일이다.

(2) 연령별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서 제시하였고 그 결과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의 유형과 연령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 ). 20~29세 여성은 긴 생머리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30~49세의 여성은 도시적인 느낌의 짧은 커트 또는 턱선 단발의 커트 스타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로는 어깨 길이 층 헤어

〈표 3〉 현재 자주 하는 커트 헤어 스타일과 직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커트 스타일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합계	Chi 검정: p value
	직장 여성	학생	주부		
짧은 커트	55(46.6) ( 21.7)	27(36.8) ( 13.5)	16(14.6)	98( 98.0) ( 18.4)	0.001**
어깨길이 흥진 커트	84(88.5) ( 33.2)	69(69.9) ( 34.5)	33(27.6) ( 41.8)	186(186.0) ( 35.0)	
긴 생머리 커트	26(29.0) ( 10.3)	31(22.9) ( 15.5)	4( 9.1) ( 5.1)	61( 61.0) ( 11.5)	
샤기 커트	13(15.7) ( 5.1)	18(12.4) ( 9.0)	2( 4.9) ( 2.5)	33( 33.0) ( 6.2)	
긴 흥진 머리 커트	40(44.2) ( 15.8)	43(35.0) ( 21.5)	10(13.8) ( 12.7)	93( 93.0) ( 17.5)	
턱선 단발 커트	35(29.0) ( 13.8)	12(22.9) ( 6.0)	14( 9.1) ( 17.7)	61( 61.0) ( 11.5)	
합계	253(253.0) (100.0)	200(200.0) (100.0)	79(79.0) (100.0)	532(532.0) (100.0)	

\*\*  $p < .01$ .

〈표 4〉 현재 자주 하는 커트 헤어 스타일과 연령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커트 스타일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합계	Chi 검정: p value
	20~29세	30~39세		
짧은 커트	44( 62.1) ( 13.3)	60( 41.9) ( 26.8)	104(104.0) ( 18.7)	0.000**
어깨길이 흥진 커트	121(115.2) ( 36.4)	72( 77.8) ( 32.1)	193(193.0) ( 34.7)	
긴 생머리 커트	51( 37.6) ( 15.4)	12( 25.4) ( 5.4)	63( 63.0) ( 11.3)	
샤기 커트	25( 20.9) ( 7.5)	10( 14.1) ( 4.5)	35( 35.0) ( 6.3)	
긴 흥진 머리 커트	65( 58.5) ( 19.6)	33( 39.5) ( 14.7)	98( 98.0) ( 17.6)	
턱선 단발 커트	26( 37.6) ( 7.8)	37( 25.4) ( 16.5)	63( 63.0) ( 11.3)	
합계	332(332.0) (100.0)	224(224.0) (100.0)	556(556.0) (100.0)	

\*\*  $p < .01$ .

스타일을 가장 자주한다고 나타났다.

**(1) 직업별**

현재 자주 하는 헤어 컬러와 직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 헤어 컬러**

〈표 5〉 현재 자주 하는 헤어 컬러와 직업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헤어 컬러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Chi 검정: p value
	직장 여성	학생	주부	합계	
블리치	11( 9.0) ( 4.3)	5( 7.1) ( 2.5)	3( 2.8) ( 3.8)	19( 19.0) ( 3.6)	0.001**
중간 갈색	55( 56.1) ( 21.7)	36( 44.4) ( 18.0)	27(17.5) ( 34.2)	118(118.0) ( 22.2)	
어두운 갈색	48( 46.1) ( 19.0)	23( 36.5) ( 11.5)	26(14.4) ( 32.9)	97( 97.0) ( 18.2)	
레드 갈색	6( 6.2) ( 2.4)	6( 4.9) ( 3.0)	1( 1.9) ( 1.3)	13( 13.0) ( 2.4)	
회색 갈색	1( 1.0) ( 0.4)	1( 0.8) ( 0.5)	0( 0.3) ( 0.0)	2( 2.0) ( 0.4)	
엘로우 갈색	5( 5.2) ( 2.0)	5( 4.1) ( 2.5)	1( 1.6) ( 1.3)	11( 11.0) ( 2.1)	
퍼플 갈색	0( 1.4) ( 0.0)	3( 1.1) ( 1.5)	0( 0.4) ( 0.0)	3( 3.0) ( 0.6)	
그린 갈색	0( 0.5) ( 0.0)	1( 0.4) ( 0.5)	0( 0.1) ( 0.0)	1( 1.0) ( 0.2)	
오렌지 갈색	3( 3.8) ( 1.2)	4( 3.0) ( 2.0)	1( 1.2) ( 1.3)	8( 8.0) ( 1.5)	
블랙	124(123.2) ( 49.0)	115( 97.4) ( 57.5)	20(38.5) ( 25.3)	259(259.0) ( 48.7)	
파스텔	0( 0.5) ( 0.0)	1( 0.4) ( 0.5)	0( 0.1) ( 0.0)	1( 1.0) ( 0.2)	
합계	253(253.0) (100.0)	200(200.0) (100.0)	79(79.0) (100.0)	532(532.0) (100.0)	

\*\*  $p < .01$ .

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 컬러의 유형과 직업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 ).

직장 여성과 주부의 경우 어두운 갈색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직장 여성과 주부는 어두운 갈색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로 보면 직장 여성 253명 중 49.0%에 해당하는 124명, 학생 200명 중 57.5%에 해당하는 115명이 응답한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의 블랙 헤어 컬러가 가장 자주 하는 헤어 컬러이고, 주부는 79명 중 27%가 응답한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는 중간 갈색이 가장 자주 하는 헤어 컬러로 나타났다.

## (2) 연령별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 평소에 자주 하는 헤어 컬러의 유형과 연령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5$ ). 33~40세는 중간 갈색과 어두운 갈색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로 가장 자주 하는 헤어 컬러로는 블랙이라고 응답하였다.

## 4) 헤어 악센트 효과

### (1) 직업별

〈표 6〉 현재 자주 하는 헤어 컬러와 인평과의 연관성 분석 결과

헤어 컬러	실측빈도(기대빈도)		합계	Chi 검정: p value
	퍼센트			
	20~29세	30~49세		
블리치	11(11.3) ( 3.3)	8( 7.7) ( 3.6)	19( 19.0) ( 3.4)	0.019*
중간 갈색	61(74.6) ( 18.4)	64( 50.4) ( 28.6)	125(125.0) ( 22.5)	
어두운 갈색	52(61.5) ( 15.7)	51( 41.5) ( 22.8)	103(103.0) ( 18.5)	
레드 갈색	10( 7.8) ( 3.0)	3( 5.2) ( 1.3)	13( 13.0) ( 2.3)	
회색 갈색	1( 1.2) ( 0.3)	1( 0.8) ( 0.4)	2( 2.0) ( 0.4)	
옐로우 갈색	9( 7.8) ( 2.7)	4( 5.2) ( 1.8)	13( 13.0) ( 2.3)	
퍼플 갈색	3( 1.8) ( 0.9)	0( 1.2) ( 0.0)	3( 3.0) ( 0.5)	
그린 갈색	1( 0.6) ( 0.3)	0( 0.4) ( 0.0)	1( 1.0) ( 0.2)	
오렌지 갈색	4( 4.8) ( 1.2)	4( 3.2) ( 1.8)	8( 8.0) ( 1.4)	
블랙	179(160.0) ( 53.9)	89(108.0) ( 39.7)	268(268.0) ( 48.2)	
파스텔	1( 0.6) ( 0.3)	0( 0.4) ( 0.0)	1( 1.0) ( 0.2)	
합계	332(332.0) (100.0)	224(224.0) (100.0)	556(556.0) (100.0)	

\*  $p < .05$ .

헤어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센트 효과와 직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헤어 약센트와 직업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p < .01$ ).

레게 머리 항목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학생은 헤어 약센트 효과로 레게 머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부 79명 중 32.9%에 해당하는 26명이 “블리치”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하기 싫다”라는 항목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으므로 주부는 헤

어 약센트 효과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로 보면 직장 여성 253명 중 26.1%에 해당하는 66명은 사회활동과 조직사회의 환경 때문에 쉬게 헤어 스타일에 약센트 효과를 주는 것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하기 싫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 여성의 블리치 항목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직장 여성은 블리치를 헤어 약센트 효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200명 중 28.5%에 해당되는 57명은 머리길이를 길어보이게 하는 “익스텐션”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7> 해보고 싶은 헤어 악센트 효과와 직업과의 연관관계 분석결과

헤어 악센트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합계	Chi 검정: p value
	직장 여성	학생	주부		
블리치	64( 59.4) ( 25.3)	35( 47.0) ( 17.5)	26(18.6) ( 32.9)	125(125.0) ( 23.5)	0.000**
부분 가발	30( 30.0) ( 11.9)	24( 23.7) ( 12.0)	9( 9.4) ( 11.4)	63( 63.0) ( 11.8)	
익스텐션	57( 61.8) ( 22.5)	57( 48.9) ( 28.5)	16(19.3) ( 20.3)	130(130.0) ( 24.4)	
레게 머리	36( 42.8) ( 14.2)	50( 33.8) ( 25.0)	4(13.4) ( 5.1)	90( 90.0) ( 16.9)	
하기 싫다	66( 59.0) ( 26.1)	34( 46.6) ( 17.0)	24(18.4) ( 30.4)	124(124.0) ( 23.3)	
합계	253(253.0) (100.0)	200(200.0) (100.0)	79(79.0) (100.0)	532(532.0) (100.0)	

\*  $p < .05$ , \*\*  $p < .01$ .

(2) 연령별

Chi-검정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8>에서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헤어 악센트와 연령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p < .01$ ). 20~29세 여성은 레게머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0~49세 여성 224

명 중 33.0%에 해당하는 74명은 “블리치”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하지만 “하기 싫다”라는 항목에서 실측빈도가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30~49세 여성은 헤어 악센트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20~29세 332명 중 27.1%에 해당하는 90명은 “익스텐션”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표 8> 해보고 싶은 헤어 악센트 효과와 연령과의 연관관계 분석결과

헤어 악센트	실측빈도(기대빈도) 퍼센트		합계	Chi 검정: p value
	20~29세	30~49세		
블리치	59( 79.4) ( 17.8)	74( 53.6) ( 33.0)	133(133.0) ( 23.9)	0.000**
부분 가발	41( 40.6) ( 12.3)	27( 27.4) ( 12.1)	68( 68.0) ( 12.2)	
익스텐션	90( 80.0) ( 27.1)	44( 54.0) ( 19.6)	134(134.0) ( 24.1)	
레게 머리	77( 54.9) ( 23.2)	15( 37.1) ( 6.7)	92( 92.0) ( 16.5)	
하기 싫다	65( 77.0) ( 19.6)	64( 52.0) ( 28.6)	129(129.0) ( 23.2)	
합계	332(332.0) (100.0)	224(224.0) (100.0)	556(556.0) (100.0)	

\*  $p < .05$ , \*\*  $p < .01$ .

5) 헤어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기준

전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직업과 관계없이 이미지, 얼굴형, 체형 의상 등이 가장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에 따른 헤어 스타일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9>에 표시하였다. “뒤어 보이기, 전문가 의견, 이성”들이 직업들의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p<.05, p<.01$ ).

“뒤어 보이기” 요인에서는 학생은 2.64이고 주부는 2.33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더욱 뒤어 보이기 위해 헤어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 여성과 주부는 헤어 스타일을 변화 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을 고려하는 경우는 직장 여성과 학생이 주부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헤어 스타일을 변화 할 때 이성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여성은 다른 집단보다 헤어 스타일에 변화를 줄 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더 고려를 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3.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의 관계분석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표 10>에 표시하였다.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 중에서 “엘레강스한”과 “쉬크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헤어 이미지요인이 같은 요인인 의복 이미지와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20~40대 여성은 헤어 스타일에서 추구했던 이미지를 의복에서도 동일하게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엘레강스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의복에 있어  $r=0.360$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새련된 헤어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의복 이미지가 “보이쉬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헤어 이미지가 보헤미안처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여성은 의복에서 깔끔함, 내추럴, 클래식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과는 부적 상관관계

<표 9> 직업별 헤어 스타일 변화 고려요인을 비교하기 위한 ANOVA 및 DUNCAN 평균 비교 검정분석 결과

헤어 스타일 변화 고려 요인(n=532)	평균			신체평균	ANOVA p value
	직장 여성 (n=253)	학생 (n=200)	주부 (n=79)		
트렌드	2.61	2.65	2.66	2.63	0.867
이미지	3.72	3.77	3.57	3.71	0.247
의상	3.39	3.43	3.39	3.40	0.925
스트레스	2.65	2.58	2.59	2.62	0.768
뒤어 보이기	2.40	2.64	2.33	2.48	0.018*
	AB	B	A		
가격	3.00	3.06	3.08	3.03	0.733
전문가 의견	3.42	3.14	3.47	3.32	0.002**
	B	A	B		
얼굴형	3.65	3.65	3.72	3.66	0.798
체형	3.52	3.46	3.65	3.52	0.265
이성	3.07	3.26	2.62	3.07	0.000**
	B	B	A		
직업	3.50	2.92	2.90	3.19	0.000**
	B	A	A		

\*  $p<.05, ** p<.01$ .

〈표 10〉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결과

의복 \ 헤어	보이쉬한	여성스러운	깔끔한	귀여운	세련된	섹시한
보이쉬한	0.582**	0.063	0.020	0.019	-0.025	0.131**
여성스러운	0.031	0.595**	0.266**	0.349**	0.309**	0.309**
깔끔한	0.072	0.369**	0.484**	0.248**	0.374**	0.178**
귀여운	0.051	0.328**	0.151**	0.586**	0.265**	0.341**
세련된	0.023	0.325**	0.318**	0.271**	0.506**	0.283**
섹시한	0.134**	0.257**	0.145**	0.304**	0.245**	0.683**
내추럴한	0.121**	0.256**	0.339**	0.218**	0.368**	0.234**
클래식한	0.085*	0.243**	0.233**	0.214**	0.231**	0.252**
모던한	0.119**	0.175**	0.244**	0.188**	0.313**	0.268**
스포티한	0.290**	0.178**	0.042	0.247**	0.132**	0.214**
쉬크한	0.240**	0.208**	0.176**	0.207**	0.328**	0.306**
의복 \ 헤어	내추럴한	클래식한	모던한	엘레강스한	쉬크한	보헤미안적인
보이쉬한	0.094*	0.149**	0.112**	0.020	0.376**	0.320**
여성스러운	0.248**	0.328**	0.270**	0.360**	0.138**	0.018
깔끔한	0.300**	0.281**	0.226**	0.189**	0.056	-0.058
귀여운	0.255**	0.248**	0.229**	0.267**	0.270**	0.173**
세련된	0.296**	0.279**	0.302**	0.263**	0.106*	0.001
섹시한	0.235**	0.308**	0.226**	0.327**	0.402**	0.307**
내추럴한	0.490**	0.281**	0.254**	0.170**	0.062	-0.018
클래식한	0.261**	0.474**	0.316**	0.353**	0.141**	-0.008
모던한	0.370**	0.351**	0.500**	0.323**	0.187**	0.073
스포티한	0.182**	0.238**	0.274**	0.263**	0.295**	0.246**
쉬크한	0.232**	0.250**	0.324**	0.227**	0.327**	0.228**
보헤미안적인	0.118**	0.078	0.099*	0.098*	0.447**	0.704**

\*  $p < .05$ , \*\*  $p < .01$ .

를 나타내었다. 즉, 보헤미안을 헤어 이미지로 추구하는 여성은 의복 스타일에서 깔끔한, 내추럴한, 클래식한 이미지를 선호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헤어 스타일에 민감한 여성 20~4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자주 하는 헤어 스타일, 헤어 컬러, 헤어 변화 시 고려하는 요인, 하고 싶은 헤어 악센트 효과와 같은 헤어

행동을 직업과 연령 변인으로 고찰하고자 하였으며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토탈 패션 스타일링에 필요한 의복과 헤어에 관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헤어 행동에서 현재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헤어 스타일은 직업과 연관성이 있었는데 직장 여성은 롤 스트레이트, 학생은 매직 폼, 주부는 일반 웨이브 폼을 자주 하는 경향이 있고 전체적 빈도만으로는 세팅 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헤어 컬러의 경우 연령과 직업변인과의 연관성이 있었는데 20~29세 연령층, 직장 여성과 학생은 블랙을 선호하였고 30~49세 연령층 및 주부는 갈색 계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트 스타일 경우 직장 여성은 도시적인 느낌의 짧은 키트플, 학생은 순수한 이미지의 긴 생머리를, 주부는 세련미가 보이는 턱선 단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직장 여성, 학생, 주부가 어깨 길이의 층이 많은 커트 스타일을 가장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비자들이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헤어 액센트의 경우 직업과 연령 변인에서 모두 연관성이 있었는데, 직장 여성과 주부는 주로 볼라지를 선호하였고 학생은 익스텐션과 레게 머리를 선호하였다.

헤어 스타일링 시 고려하는 기준을 보면 학생의 경우 남들과 다른 개성 연출을 위하여 헤어 스타일을 선택할 때 자신의 환경에서 얼마나 튀어 보일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여성과 주부의 경우는 본인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자신의 헤어 스타일에 더 많이 반영한다. 즉 위 그룹은 미용실을 선택 할 때에도 상담을 중요시 하므로 좋은 미용실을 선호한다는 것을 유추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인 헤어 스타일리스트도 30~40대의 고객에게는 좀 더 주의 깊고 전문화된 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생의 경우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헤어 스타일 변화 시 남자친구의 취향을 자신의 헤어 스타일에 가장 많이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헤어 스타일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자기 관리이미지의 요소 중에 하나이다. 헤어 스타일을 변화할 때 단순히 자신의 취향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령, 직업, 추구하는 이미지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과의 토털 코디네이션을 이뤄야만 제대로 된 헤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즉 헤어 스타일은 본인 스스로 연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항상 헤어전문가가 고객의 여러 상황에 맞추어 스타일유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헤어 스타일리스트는 단편적인 기술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심리, 외형, 가치관,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스타일을 연출 할 때 고객들의 만족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해 본다.

2.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에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시한' 이미지와 '보헤미안적인'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추구하는 헤어 이미지와 의복 이미지를 통일감 있게 연출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난, 헤어 이미지의 '쉬크한'을 추구하는 여성은 의복에서는 '쉬크한' 보다는 보헤미안적인 의복 이미지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련된'을 헤어 이미지로 추구하는 여성은 '보이쉬한' 의상을 싫어하고 보헤미안적인 헤어 이미지를 추구하는 여성은 의상 스타일에서 귀여운 스타일, 내추럴한 스타일, 클래식한 스타일은 기피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에는 성숙기에 접어든 마용시장에서 현재 미용실의 주요 고객층인 20~49세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헤어 행동과 의상에 대한 토털 코디네이션에 관한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연령이 20~49세로 제한되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고령화에 좀 더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앞으로 50대 이상 여성들의 헤어 행동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헤어 시장의 경우는 머리가 계속 자라나고 변화를 줄 필요가 시기가 대략 정해져있으며 헤어 스타일링 비용이 비슷하게 소비되는 시장이므로 의복 행동에서 보여지는 럭셔리 시장과 대중 시장으로 세분화되는 시장과 다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돈이 많다고 여러 번 껌을 할 수 없고 명품 옷처럼 명품 헤어 스타일링 시 돈을 현저하게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소득과의 헤어 행동과 연관 지어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 경제력에 따른 헤어 행동 고찰을 해보고 과연 의복 행동과 어떻게 다른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있으며, 또한 연령 세분에 있어서도 30대, 40대와 50대 등으로 연령의 간격을 좀 더 좁게 세분화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고경숙, 윤복연, 박용 (2005). *헤어 컬러디자인*. 훈민사.
- 고성형, 김세옥, 김희숙, 유유정, 이진아, 원선희, 정

- 미희, 정지영 (2002). *커트 디자인*. 서울: 수문사.
- 곽형심 (1997). *모발 미용학*. 서울: 정문각.
- 김명주, 오현주, 이숙자 (2006). *모발 미용학*. 운민사.
- 김명희 (2001). “헤어 스타일 모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숙 (1999). “여성들의 헤어 스타일의 변화와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 (1994). “20세기 서구여성 헤어 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숙 (2004). “헤어 스타일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숙희 (2002). “헤어 스타일에 대한 여성들의 외식 형태와 관련요인 분석.”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현숙 (2005). “현대 여성의 토틸 코디네이션 연구: 얼굴형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션 (2001). *Hair Color Art*. 현문사.
- 이정희 (2005). “여대생의 헤어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헤어 디자인 선호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2001). *Hair Concepts & Application*. 청구문화사.
- 이혜정 (2004). “현대 트렌드 분석에 따른 헤어,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 (2006). “토틸 패션 Styling을 위한 헤어행동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경연 (2002). “헤어 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헤어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i, N. Y. (2006). “Symbolism of Hair Styles in Korea and Japan.” *Asian Folklore Studies* Vol. 65.
- Kéïta, S., O. Faye, B. D. M. Kane, N. Daiye, H. Y. Th, P. Traore and K. Coulibaly (2005). “Hair Care and Hair Style in Women in Bamako, Mali.” *International Journal of Dermatology* Vol. 44, No. Suppl 1.
- Yu, H. L., C. Kim, J. Lee and N. Hong (2001). “An Analysis of Modern Fashion Design as Influenced by Asian Ethnic D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Vol. 25, No. 1.